

## 정부는 코로나19 영화 지원을 가장 긴급한 곳에 직접적이고 차별 없이 집행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은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는다.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지역, 계층을 초월하며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다. 전 인류에게 ‘결코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강제하고 있기에, 이 재난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협조와 동의, 노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의 영화 산업과 문화 또한 전례 없는 위기를 맞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그러나 유통과 배급으로 대표되는 수치가 산업의 주요 지표가 된 나머지,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야와 역량이, 무엇보다 사람이 참여하는지 간과되곤 한다. 영화 환경은 회사 대 회사의 계약 외 개인과 회사의 협업이 수없이 존재한다. ‘종합예술’로서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 과정에는 소위 프리랜서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있다. 위기는 상층의 플랫폼에서부터 구체적인 개인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다. 영화는 이렇게 개인에서 산업으로 이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화계에 끼친 영향은 ‘생태계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요약된다.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될 수 없고, 한 시기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를 넘어, 생태계 구성원의 삶의 작동까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영화 생태계에서 ‘영화업을 통한 수익’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집필, 강의, 각종 영상제작 그 외 다양한 비정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각종 통계지표와 실태는 대다수 영화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은 영화 생태계 최하위에 위치한 독립예술영화 단체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고 총 23개 단체와 52명의 개인 총 75곳이 참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독립예술영화 제작, 유통·배급, 상영, 교육 등 생태계 전반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독립영화인들이 정부의 지원제도에 부적격하거나 코로나19 위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립영화 산업의 핵심을 구성하는 개인 프리랜서들은 각종 사회안전망의 외곽에 있어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는 절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조사에 참여한 독립영화인 중 절반에 가까운 42%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수입이 전혀 없어 기본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 영화 단체와 영세한 독립영화 제작사 및 배급사, 극장 전체가 사업의 운영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활동이 위축되고, 50%에서 100%까지 매출이 급감하였다.

독립예술영화 현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4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업종별 지원 방안 III’과 이를 구체화해서 발표한 4월 21일의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은 영화 현장의 피해를 수습하기에는 너무도 미진하다. 특히나 프리랜서와 비영리 활동 위주의 독립예술영화계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 지원대책은 영화계 전반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대폭 감면 외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코로나19로 제작에 차질을 받고 있거나 개봉이 연기된 영화에 대한 지원(각 21억 원)과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400명, 8억 원)뿐이며, 이 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총액은 50억 원이다. 이는 문화부와 영진위가 영화발전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된 170억 원의 예산 중 29.4%에 불과하다. 확보된 예산의 70.6%가 투입되는 200개 영화관 특별전 개최(30억 원)와 할인권 제공(90억 원)은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현재 영화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하고 직접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우리보다 코로나19 위기는 늦게 찾아왔으나, 영화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개인(프리랜서)과 정부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화관련 중소기업, 기업 그리고 아트하우스 등 독립예술영화관들에 대한 긴급한 응급 지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은 원칙과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에 준하는 현재 영화현장이 느끼는 위기의 절박함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은 이에 현장 영화인의 목소리를 긴급히 정책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긴급한 지원 정책이 실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더불어 독립예술영화의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영화 문화와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 전체가 서로 연대하고 위기를 함께 공감하기를 희망한다. 국민 문화 향유의 88%(통계청, 2019사회조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영화 분야이다. 영화는 산업이며 예술이고, 노동자의 생계이며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이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는 현재 영화산업과 영화문화가 겪고 있는 재난에 전향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현장을 살리는 긴급한 조치들을 하루 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은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은 가장 긴급한 곳에 직접적이고 차별 없는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은 현장에 근거해야 한다. 현장의 피해와 영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현장 영화인이 참여하는 코로나 대응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 코로나19 영화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 단체, 기타 종사자에 대한 긴급 구제 기금을 조속히 편성하라.
- 정부는 코로나19가 영화계에 가져온 막대한 피해 상황을 직시하고 입체적이고 전향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0. 04. 22.

##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고씨네,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네오무비,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독립미디어연구소,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레드무비,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 미디어트, 부산평화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아트시네마, 시네마달,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에스엔케이프로, 영화사진진, 오지필름, 인디다큐페스티벌, 인디스토리, 인디스페이스, 제이피프로덕션, ZONE Film, 추억극장 미림,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인 52명

## 코로나19 독립·예술영화 긴급 지원사업 요청(안)

### 1. 코로나19 특별 독립예술영화인(프리랜서) 긴급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영화인을 지원함으로써 영화 창작과 생계안정 유지

○ 창작지원금 긴급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업 영화창작자(감독, 작가, 프로듀서, 스태프, 배우 등) 중 코로나19로 인해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

○ 활동지원금 긴급 지원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업 영화인(기획자, 상영·배급활동가, 비평가, 교육자, 영화제 스태프 등)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

○ 지원 방식

- 별도로 정한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정액 직접 지급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 2. 코로나19 특별 영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고용 유지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영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고용을 유지하며 영화 관련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생계안정 유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고용 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영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지원 방식

- 별도로 정한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법인과 단체에 직접 지급

### 3. 코로나19 특별 영화기업 긴급 정책자금 초저금리 대출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화기업의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긴급 용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손해를 입은 영화 제작업·수입업·배급업·상영업자

○ 지원 방식

※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 업종에 영화업 포함

-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상 업종에 영화업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영화발전기금 등을 통한 정책자금 대출 추진

#### 4. 코로나19 특별 독립·예술영화 전용상영관 긴급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유지

○ 지원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독립·예술영화전용관

○ 지원 방식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급

#### 5. 코로나19 특별 영화 배급 긴급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화 배급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개봉했거나 예정인 영화의 피해를 지원함으로써 배급사의 경영 안정과 산업 건전성 유지

○ 지원대상

- 2020년 1월 이후 개봉했거나 예정인 영화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영화의 배급사

○ 지원 방식

-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급

#### 6. 코로나19 특별 영화관·영화제 방역 지원

○ 지원 목적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영화관과 영화제가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관객에게 안전한 영화관람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산업 정상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영업자 중 통합전산망과 연동 중인 영화관
-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영화제

○ 지원 방식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과 시행이 예상되는 생활 방역체계에 따른 영화제·영화관 방역 지침 마련
- 영화관 :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방역물품 구매 지원
- 영화제 :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체 방역물품 임대 및 방역 교육 지원

#### 7. 기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상영등급분류 신청 수수료 감면

- 2020년 1월 이후 개봉했거나 개봉 예정인 영화에 대해 한시적으로 영화 상영등급분류 신청 수수료 감면

○ 한국영상자료원 ‘독립영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 독립영화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예산을 증액으로 조정하여 ‘우수 독립영화 보상 수집’의 편수를 늘리고,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경영 보조

# 코로나19 독립예술영화 분야 피해 조사 분석

2020.04.20. 독립미디어연구소

1. 피해 조사 개요
2. 피해 현황
3. 피해 지원 신청
4. 지원 방안 제안

[자료1]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립영화인 의견

[자료2] 해외 영화분야 코로나19 지원 정책

1

## 피해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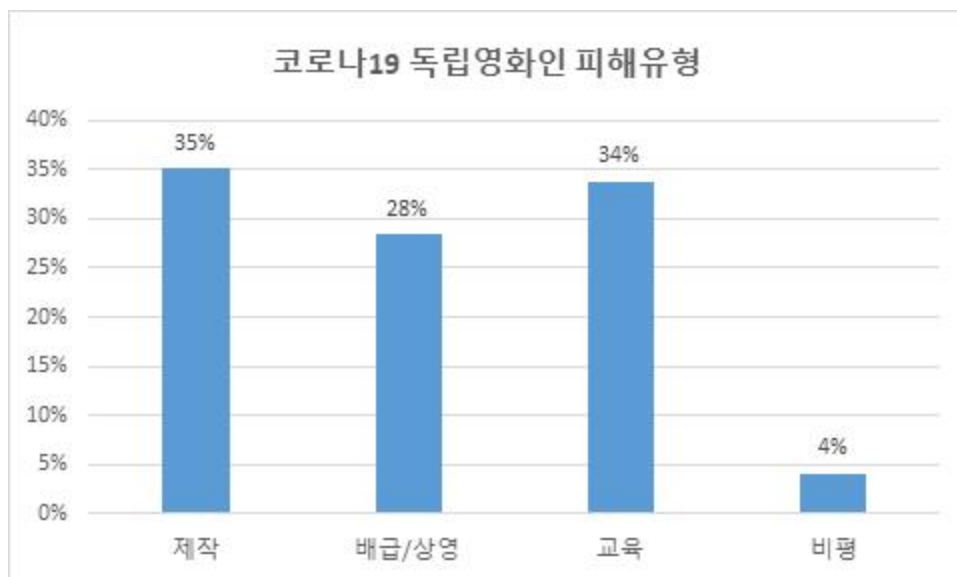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0년 4월 6일(월) ~ 4월 12일(일) 7일간
조사대상		독립예술영화 관련 개인(프리랜서), 단체, 기업 등
조사방법		온라인 구글 설문지 및 이메일 접수
응답자수		총 75건 (개인 52명, 단체 및 기업 23곳)
응답 구성	구분	①개인 52명 ②비영리단체 10곳 ③기업 13곳
	분야	①제작(39) ②유통/배급(5) ③상영관(9) ④영화제(4) ⑤영화교육(12) ⑥영화비평(3) ⑦기타(3)
	소재지	①강원(7) ②경기(2) ③경남(3) ④광주(7) ⑤대구(5) ⑥부산(10) ⑦서울(35) ⑧인천(4) ⑨전남(1) ⑩제주(1)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코로나-19 피해현황 (피해내용 / 피해액)</li><li>• 코로나-19 피해 지원신청 (지원사업 / 애로사항)</li><li>• 코로나-19 지원 방안</li></ul>

### □ 피해 분석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독립예술영화 분야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작-유통-배급-상영에 이르는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전반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독립영화인들의 주수입원이기도 한 영화교육 분야에서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확인됨.
- 코로나19로 인한 독립예술영화의 피해현황은 개인과 단체를 나누어 분석함. 개인 피해 현황은 제작/상영/교육/비평 4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단체 및 기업의 피해 현황은 상영관·배급사·영화제 등 분야별로 피해현황과 피해액을 분석함.

### □ 개인 피해 현황

- 개인(프리랜서) 응답자 52명과 1인 제작기업 4곳을 합산하여 총 56명의 응답 분석.
- 설문응답자 중 독립예술영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프리랜서)은 감독, 제작스텝, 배우 등 제작분야에서 활동하며 영화교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상영기획 및 비평 분야에서 활동하는 독립영화인도 포함됨. **응답자의 100%가 코로나 위기에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 코로나 19 독립영화인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하였으며,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배급/상영·교육·비평 등의 분야에서의 피해를 확인함. 각 분야 별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음(중복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제작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전체 개인 응답자의 35%가 제작 분야에서의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람 간 밀접 접촉이 필수인 다큐멘터리 및 독립영화 전반에서 제작이 중단 또는 연기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촬영의 경우 재개 전망이 불투명하여 제작 연기에 따른 제작비(특히 인건비) 증가 문제가 심각함. 제작 분야 스태프들의 고용기회가 급감하여 **제작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임.**
- 독립영화인들 대부분 제작 분야 피해와 더불어 교육 분야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전체 개인 응답자의 34%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 연기 취소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힘. 그동안 독립영화 제작과 연계한 수익 확보가 어려운 조건에서 개인(프리랜서)들에게 영화교육은 주수입원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미디어센터, 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됨에 따라 직접적 수익원의 상실로 코로나 시기 수입이 0원인 경우가 다수.** 독립영화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형태의 지원방안 필요성 높음.
- 개봉 취소 및 연기, 공동체상영 취소 등 배급/상영 분야에서의 피해도 큼. **개봉이 연기, 취소된 독립영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개봉한 작품의 경우 관객 수 급감(6-70%), 재개봉 영화와의 경쟁에 따른 상영기회 감소 등 독립예술영화 상영 조건 악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독립영화의 또 다른 상영통로인 공동체상영, 영화제, 해외상영 등 모든 상영기회의 중단.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누적.
- 피해사례에서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영화리뷰 및 해설 등 영화비평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프리랜서)들의 피해도 확인됨. 특히 **신작들의 개봉이 연기, 취소되면서 이와 연계된 비평활동도 중단되고 있으며, 비평 관련 행사 및 교육도 연이어 취소되고 있는 실정.**
- **독립예술영화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각 분야의 피해는 개별적이기보다는 연쇄적 작용으로서 제작에서 상영, 교육, 비평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함.**
- 각 분야별 세부 피해 유형과 피해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응답자 작성 내용 인용)

구분	피해 유형	피해 내용
제작	제작 연기 및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촬영진행 및 후반작업 등이 모두 지연 및 취소</li> <li>• 제작주인공들과의 만남, 촬영 등이 진행되지 못해 제작 잠정 중단. 제작 아르바이트도 중단.</li> <li>• 다큐 촬영 연기, 촬영 장소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발생</li> <li>• 코로나 19로 취재 인터뷰 어려움</li> <li>•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 취소로 제작이 중단. 4월을 집중적으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중단되어 작품이 1년 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나리오 초고 탈고 및 섭외 과정 중인 단편 제작 무기한 연기</li> <li>• 예정된 영화 후반작업, 개봉에 따른 배급 상영본 제작 연기</li> <li>• 영화제작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면서 배우 오디션이나 캐스팅이 최근 2개월 넘게 없었음</li> <li>• 해외촬영 중단. 코로나 사태 전세계적으로 종결되어야 촬영 가능한 상황</li> <li>• 현재 한일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장편영화가 멈춰선 상태. 국제영화제에 갈 계획이었으나 많은 차질로 고충을 겪고 있음</li> <li>• 제작 관련 스태프들을 모으기 힘들고 촬영 일정을 진행하기 힘들어짐</li> </ul>
	제작지원 및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우드펀딩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2월 촬영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무기한 연기. 펀딩후원자들에게 작품 공개를 약속했던 시일이 지남</li> <li>• 투자가 밀리면서 고용 및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li>• 고령자 다수 출연하는 영화의 특성상 제작 연기. 작년에 제작지원 받았으나 올해 내 완성 어려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19 상황으로 아이가 교육, 보육기관에 가지 못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li> <li>• 광고, 홍보, 방송 외주제작 및 촬영 등의 일들 모두 없어짐</li> <li>• 제작 스태프로 일할 기회 줄어들음. 영상제작프리랜서 일 줄었음</li> </ul>
배급 상영	개봉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장 개봉 중이던 영화 &lt;이태원&gt;, 영화관이 갑자기 휴관되면서 공식종영 못한 채 마무리</li> <li>• 다큐 &lt;기억의 전쟁&gt; 개봉일이 코로나 급속 확산 시기와 맞물림. 이미 개봉 P&amp;A 비용 사용하였기 때문에 개봉 연기 못함. 상영관 휴관으로 예정 개봉관의 1/3정도만 개봉. 관람 관객 급감(예상관객 5,000명 -&gt; 실제관객 1,760명). 관련 GV행사 등 취소 및 축소 진행</li> <li>• 영화 &lt;찬실이는 복도 많지&gt; 이미 지출된 홍보비로 인해 개봉을 미룰 수 없어 예정대로 2월 개봉함. 홍보 행사 취소 및 축소. 멀티플렉스 재개봉작 상영, 영화관 휴업 등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종영</li> </ul>
	개봉 연기 및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급사의 어려운 상황으로 하반기 개봉일도 정하지 못한 상태. 선판 매된 부가판권 금액으로 부족한 영화 제작비 충당. 개봉 취소시 부가판권료 반납 상황까지 우려</li> <li>• 3년 동안 제작한 영화를 1월에 시사회하고 올 상반기 개봉 및 공동체 상영 예정하였으나 무기한 취소</li> <li>• 작품 출품 및 개봉이 6월 이후로 연기된다면 불가피하게 사업청산 고려</li> <li>• 외부투자 없이 자사자본으로 제작을 마치고 개봉이 어려워지면서 자본 잠식(8천만원) 상태. 타 기관의 신작 지원도 못 받는 등 연쇄적으로 불이익 초래. 자본잠식으로 이후 지원금 신청에도 장기간 불이익 받게 됨</li> </ul>
	상영 연기 및 취소 (영화제/공동체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제 연기로 작년에 제작한 장편다큐 상영이 취소됨</li> <li>• 8월 말 열리는 영화제 코로나로 인해 취소 가능. 영화제 준비작업 및 회의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업무 진행 어려움</li> <li>• 상영예정이었던 전주영화제 등이 연기 및 취소되어 제작비 및 투자금의 상환 등이 힘겨운 상황</li> <li>• 단편영화 상영 무기한 연기. 상영의 기회가 없어서 배급이 힘들어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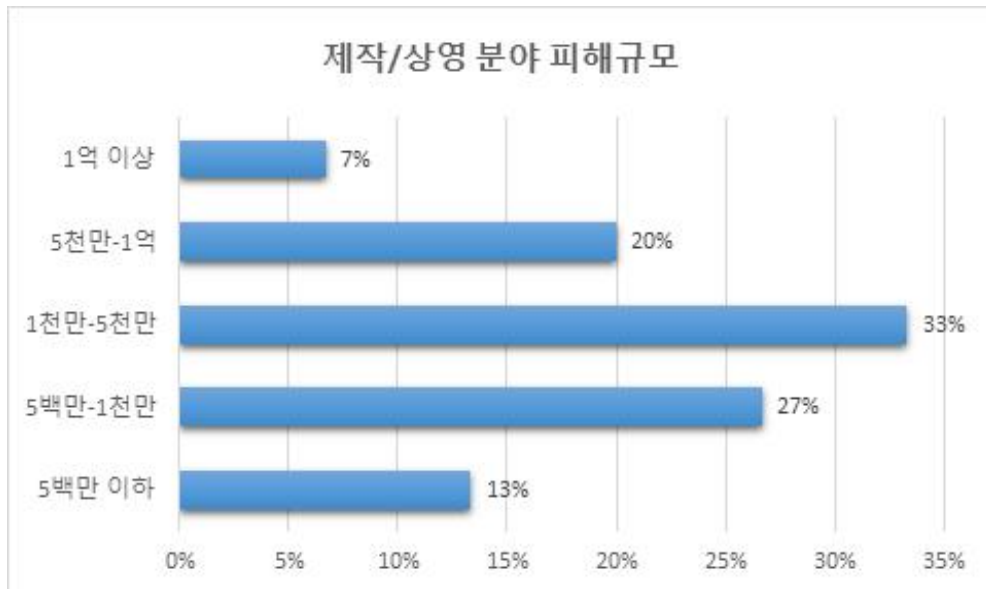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다큐 공동체 상영회 초청 취소로 상영료 및 초청강사료 받지 못함</li> <li>• 상영기획 관련하여 6개월 동안 프로그래밍 및 준비를 마쳤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취소. 그 외에 정기 상영도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li> </ul>
	해외 상영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전시형태의 상영회들이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 상영작으로 선택된 해외의 영화제들도 취소. 상영/전시 취소는 앞으로의 상영들과 홍보 효과, 배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li> <li>• 해외 영화제 온라인 상영으로 변경, 초청 참여 관련 지원금 반환함. 예정되어 있던 해외상영회 취소</li> </ul>
교육	영화교육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일정이 취소되어 생활비 수급에 어려움이 큼. 당장의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li> <li>• 영화 제작 관련 교육 강의가 잠정적 무기한 연기</li> <li>• 3월 경주에서 3주간 강의, 4월 대구미디어센터 8주 강의 무기한 연기</li> <li>• 미디어센터나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서 주수입원이 사라짐.</li> <li>•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실기교사로 재직. 개학 연기로 생활고. 학교 온라인 개학해도 실기수업 특성상 수업재개 불투명. 유일한 수입원이라 고충 큼</li> <li>• 청소년 영화교육 강사일정 상반기 취소(7월 이후 진행)</li> <li>• 본업(독립영화제작)으로는 생계유지 불가, 부업(예술강사) 연기로 피해</li> <li>• 영화 관련 교육 및 사업 취소되거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난 3개월간 소득 없음</li> <li>•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개학이 미뤄지면서 수업을 못하고 있음. 수입원의 전부이다보니 생활비가 바닥</li> <li>• 대학 영화과 특강 취소</li> <li>• 영상촬영 및 사진 등 교육사업 전면적인 취소로 인한 생활고 가중</li> </ul>
비평	영화리뷰 게재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 청탁주체인 영화관 휴관으로 평론활동 무산. 활동동기 상실</li> <li>• 영화리뷰, 비평 작성이 주업무/소득원인데 코로나 19로 개봉영화 대거 개봉 취소, 리뷰 작성 및 게재가 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음.</li> <li>• 극장과 교육시설 폐쇄로 인한 영화 해설 및 관객과의 대화, 연계된 비평 수업 불가능</li> </ul>

## □ 개인 피해액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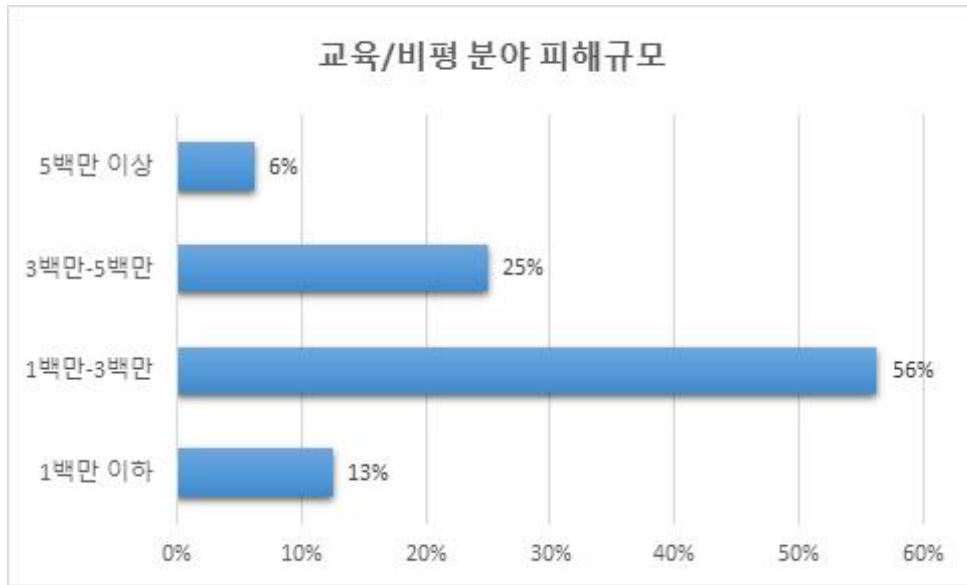
- 독립예술영화인 개인의 피해규모는 응답자들이 제시한 피해액을 바탕으로 제작/상영 분야와 교육/비평 분야에서 피해액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
- **개인 응답자 52명 중 42%인 22명의 응답자가 코로나19 사태 기간 수입이 전혀 없다고 응답.** 영화 분야 프리랜서들은 이전에도 겨울이 힘든 시기였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2월 이후 수

입이 전무, 앞으로도 일거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인 카드대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 대구 지역 프리랜서의 경우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영화 관련 매출이 전혀 없음을 토로하고 있음.

- 독립영화계의 피해는 공연 취소 등과 같이 계약관계가 분명하여 피해증빙이 용이한 예술분야와 다르게 피해액 산정 및 증빙이 어렵다는 점을 응답자 다수가 제기함. 또한 현재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피해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제작/상영 분야 피해규모는 적게는 5백만원 이하부터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나타남. 제작/상영 분야의 피해규모는 1천만원~5천만원 사이가 33%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으며, 특히 **제작 연기로 인한 제작비 상승이 주 피해요인**을 차지함.
- 개봉 연기 및 취소, 개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제작 분야보다 더 컸으며, 5천만원 이상의 피해는 주로 개봉 분야에서 나타남. 특히 제작을 기 완료하여 개봉 등 상영을 통해 제작비가 회수되는 영화제작의 특성상 **개봉단계에서 상영이 취소되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관객 급감 등으로 매출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큰 것으로 확인됨.**
- 개봉 외에도 공동체상영회 취소, 영화제 연기로 인한 상영 취소, 해외상영회 취소로 인한 피해액은 500만원 이하로 크지 않으나 독립영화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주요 기회를 잃는 것은 물론 상영료, 감독초청료 등의 수입원의 상실로도 이어짐.



- 교육/비평 분야 피해규모는 제작/상영 분야보다는 적으나, 프리랜서 독립영화인들의 고정적인 수입원이었던 만큼 그 피해의 체감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2~3월 두 달간 교육/비평 분야 피해규모는 1백만원 이하부터 5백만원 이상까지 분포하고 있음. 그 중 절반이 넘는 56%의 프리랜서들이 1백만원~3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다음으로 25%가 3백만원~5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비평 분야의 피해규모는 다소 적은 편이어서 1백만원 이하에 해당됨.
- 초중고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 방과후 영화수업 등이 전면 취소되었고, 관련학과 대학 강의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으나 실기가 많은 영화수업 특성상 강의 자체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음. 미디어센터와 영화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모두 연기, 취소됨으로써 **지난 두 달간 교육 분야의 피해는 전년 대비 100%에 이르는 수입 감소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피해액 외에도 계획되었던 모든 활동들이 무기한 연기되고,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프리랜서 독립영화인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피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 단체 및 기업 피해 현황

- 독립예술영화 분야 단체 및 기업의 피해 현황은 조사에 참여한 20곳을 ① 배급사(5) ② 상영관(9) ③ 협회 및 영화단체(5)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구체적 피해현황 및 피해규모를 살펴봄.

## 1) 배급사

- 독립예술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대표 배급사 시네마달, 인디스토리, 영화사진진과 지역 공동체 상영 등 다양한 배급활동을 하고 있는 씨네소파, 레드무비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시기 배급 관련 피해를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시사회, GV 등 모든 행사가 전면 취소되고, 개봉 연기 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의 또 다른 배급통로였던 공동체상영 취소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도 상당함.** 배급사 매출 급감으로 안정적인 고용 유지 및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음.
- 각 배급사 세부 피해 내용과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응답자 작성 내용 인용)

단체명	피해내용	피해금액
시네마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개봉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봉 시 상영관 축소, 관객수 감소. 개봉 예정했던 상영관 중 정상영업 17개관, 휴관 확정 18개관. 51% 개봉관 감소. 해외 주인공 초청 계획 취소</li> </ul> </li> <li>• 개봉 예정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4주기에 맞춰 세월호 주제의 다큐 개봉을 계획 하였으나, 개봉 연기</li> </ul> </li> <li>• 기타 예정되었던 공동체상영 전면 취소. 특히 세월호 추모 기간은 관련 작품의 공동체 상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 작년 130회 가량 상영 진행. 현재 관련 상영 횟수 0</li> </ul>	<p>공동체상영 피해액 3000만원(150회 감소)</p> <p>기획전 및 기타 상영 400만원(20회 감소)</p> <p>개봉 피해액 800만원(2000명 감소)</p>
영화사 진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4월 개봉 확정작 2편 개봉 무기한 연기</li> </ul>	<p>전년 동기간 대비 (1/4, 2/4분기 예상치 포함) 55-60% 감소 매출 3억-4억 감소</p>
인디스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봉 관련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봉 연기로 상영회 및 시사회 취소</li> <li>- 개봉 확정 극장(독립/예술영화전용관) 대거 휴관</li> <li>- 개봉과 연계한 극장 기획전 및 전시 취소</li> </ul> </li> <li>• 공동체 상영 관련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대비 공동체 상영 급감. 3월 공동체상영 0회</li> </ul> </li> <li>• 해외 관련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세일즈 관련 영업 피해. 수익정산 입금 보류</li> <li>- 해외 행사 및 영화제 취소</li> </ul> </li> </ul>	
레드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상영 연기 및 취소</li> <li>• 영상물 제작 취소</li> </ul>	1,300만~1,500만원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객 감소, 영화관 휴관, 상영행사 취소 등으로 배급사 매출 급감</li> </ul>	전년 대비 매출 95% 감소

## 2) 상영관

- 조사에 참여한 상영관은 강릉, 광주, 대구, 목포, 서울, 원주 등에 소재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시네마떼끄, 지역의 비상설 영화관 등. 전년 대비 평균 70~80% 이상의 관객 급감. 이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구 지역의 극장의 경우 2/20(목)~4/19(일) 60일 동안의 장기 휴관으로 인한 피해가 특히 심각함.
- 코로나 19로 인하여 휴관, 단축운영, 기획전 및 관객 참여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인한 매출 급감, 방역에 따르는 추가 비용 발생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영관 다수. 영화관 스태프들의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영화관이 안전한 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
- 각 상영관 세부 피해 내용과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응답자 작성 내용 인용)

단체명	피해내용	피해금액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객수 및 매출액 급감</li> <li>- 매출액 :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대비 2월 41% 감소, 3월 73% 감소</li> <li>- 관객수 : 2월 47% 감소, 3월 78% 감소</li> <li>• 프로그램 연기 및 취소</li> <li>- 장기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연기</li> <li>- 감독 및 배우 초청 취소</li> <li>• 직원 고용 불안</li> <li>- 관객 응대 주업무, 코로나 감염 우려 높음</li> <li>- 매출 급락과 재정 불안정으로 고용안정 우려</li> </ul>	2~3월 누적 피해액 9,390,766원 감소
광주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년 대비 70% 이상 관객 감소 (2월 40% 감소, 3월 70% 감소)</li> <li>• 단체관람 취소 (2~4월 542명 취소)</li> <li>• GV 취소 : &lt;기억의 전쟁&gt; &lt;찬실이는 복도 많지&gt; &lt;이장&gt; 감독 GV 취소</li> <li>• 행사 취소 : 프랑스문화원과 공동주최 행사 취소</li> <li>• 매출 급감, 심리적 육체적 피로 증대</li> <li>• 개봉일 연기 및 기획전 차질 등 20년 상영 일정 대폭 혼선</li> <li>• 관객 친밀감 역제로 영화 커뮤니티 저하</li> </ul>	2~4월 누적 피해액 19,590,000원 4월 7-80% 매출 감소 예년 관객수(매출) 회복 불가능
광주독립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26일부터 4월 9일 현재까지 계속 휴관</li> <li>• 계속되는 휴관으로 기획전 연기, 일반 개봉 상영 2달 동안 하지 못함</li> <li>• 관객유입으로 인한 자체 수입이 전혀 없음</li> </ul>	전년 대비 매출 100% 감소

<b>대구 오오극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0(목)~4/19(일) 60일 동안 휴관</li> <li>• 장기 휴관으로 15명 가량의 멤버십회원 탈퇴로 회비 감소</li> <li>• 개관 후에도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 전년 수준의 회복은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li> </ul>	전년 대비 2천만원 매출 감소 개관 후 주기적으로 방역/소독 비용
<b>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라운지MM</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영화관 상영일정 연기</li> <li>• 영화교육캠프 연기</li> <li>• 교육수업 연기</li> <li>• 2020년 수익사업 전무</li> </ul>	전년대비 수익 전무
<b>서울아트시네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객 감소 및 정부 시책에 부합하고자 자발적 휴관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한 상근자 등의 인건비 지급 어려움</li> <li>• 전년 동원 대비 매출액 70% 감소</li> </ul>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1,500만원 감소
<b>원주 고씨네(Go-Cin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니씨어터 고씨네 개관 지연(2개월)</li> <li>• 교육활동 및 기획 축소에 따른 업무 방해</li> </ul>	전년 대비 매출액 50% 감소
<b>인디스페이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관객 수 전년 동원 및 당해 1월 대비 60% 감소 (지난 해 3분기 이후 관객수 증가 추이 고려 않음)</li> <li>• 3월부터 기존 5,6회차에서 3,4회차로 단축 상영</li> <li>• 개봉 취소로 인한 프로그램 부재, 토크 프로그램 취소로 관객과 매출 감소</li> <li>• 대관 및 시사회 취소</li> </ul>	전년 대비 매출액 70% 감소 3월 총매출 1,400만원 감소
<b>추억극장 미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관 및 교육사업 예약 감소</li> <li>• 극장 내 문화예술프로그램 수업 중단 (원데이 클래스, 기타교실, 음악프로그램 등)</li> <li>• 노인일자리사업 통해 활동하시던 어르신들의 활동 중단</li> <li>• 한일 예술영화관 교류 행사 취소(연기)</li> </ul>	임시휴관(2/24~)부터 현재까지 매출 0 전년 대비 100% 감소 월 평균 매출 피해액 1,500만원(티켓판매수익)

### 3) 협회 및 영화단체

- 독립영화인들의 연단체, 협회, 영화제, 미디어센터 등 영화단체들의 피해 현황 확인. 단체들의 피해는 교육, 행사, 상영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영화단체가 기획한 사업 등이 무기한 연기, 취소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독립영화인들에게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영화제 또는 상영회의 경우, 일정이 연기되면서 프로그래밍, 홍보 등 이미 투입한 기 집행비용 정산받기 어려우며, 연기에 따른 스태프 고용 연장 등 인건비 증대 불가피. 사업 운영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 높아짐.
- 미디어센터 등 교육기관의 경우, 휴관에 따른 자체 피해는 물론 교육 연기 및 취소로 인하여 독립영화인 강사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음.
- 각 영화단체 세부 피해 내용과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음. (응답자 작성 내용 인용)

단체명	피해내용	피해금액
(사)광주영화영상인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시민참여영화제작워크샵, 지역영화전문가양성을 위한 영화학교 중단</li> <li>• 지역영화인 네트워크 행사 연기, 영화비평지 제작 무기한 연기 등</li> <li>• 사업이 수행되는 물리적 공간인 광주독립영화관 폐쇄(광주시 관리 건물)로 지역영화인 및 시민들을 위한 거점공간 의미 퇴색, 인지도 추락</li> </ul>	2천만원 이상
대구경북 독립영화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제 개최 불안정, 지역 극장에서의 상영준비의 어려움, 기타 사업 심사 연기에 따른 사업 진행 무기한 연기</li> <li>• 지역 감독들 시나리오 작업 및 프리프로덕션 공간 폐쇄로 독협 회의실 이용. 워크샵 강사, 촬영 알바 등 모든 경제활동 중단</li> <li>• 협회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여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 제공</li> </ul>	
미디어액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교육 및 영상장비 대여 등을 하는 미디어센터</li> <li>• 3월 3주간 휴관으로 운영 중단</li> <li>• 개인 및 기업 후원 중단 및 축소</li> <li>• 교육 및 장비 대여를 통한 수익 50% 이상 급감</li> <li>• 센터교육을 통해 강사비를 받는 독립영화인들의 생활고 가중</li> </ul>	전년 대비 매출 52% 감소 (3월 550만원 감소) 작년 대비 기업후원금 3억원 감소

<b>부산평화영화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 후원 보류에 따른 &lt;부산평화영화제&gt; 개최 여부 불확실</li> <li>•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혹은 개최 일자 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지출액 증가</li> </ul>	심사비 미지급 (6백만원) 단기 스태프 고용 유지 및 연기에 따른 추가 스태프 고용 금액 (16백만원)
<b>인디다큐페스티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예정 영화제 연기</li> <li>• 준비 완료된 일부 프로그램 및 행사의 연기 또는 취소</li> <li>• 사업 특성상 단기 스태프 고용으로 실무진 구성. 영화제 연기에 따른 고용 연장 필요 및 경상비 상승</li> <li>• 영화제 개최 시 안전한 현장 운영 및 활동가 안전을 위해 운영 인력(스태프, 자원활동가) 계획 수정 필요</li> <li>• 상영관 내에서 관객과의 대화 등 부대행사 지속되는 만큼 대관 극장에서 시행중인 기본 방역 외 추가 조치 계획</li> <li>• 이러한 대응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추가 발생 예상</li> </ul>	단기스태프 고용유지 및 연장, 일부 프로그램 및 행사 취소, 상영관 추가 방역 실시 등에 따른 약 1,000만원 이상 피해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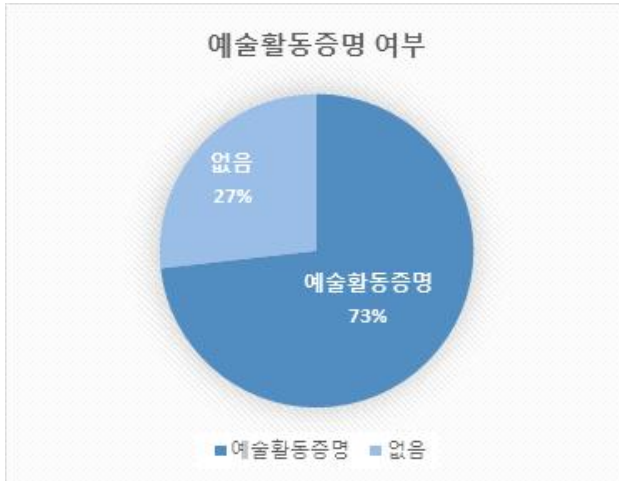
## 피해 지원 신청

#### □ 개인 피해 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사업은 정부의 긴급지원금, 지자체의 긴급생활지원, 특수고용직 지원, 예술인복지재단의 긴급지원대출, 창작지원금 등이 있으며, 문화재단 등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사업 등이 있음.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 개인(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아직 없음.
- 개인(프리랜서)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인들의 경우, 응답자의 약 73%가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예술인,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을 하였음. 그러나 실제, 예술인복지재단의 긴급지원이나 창작지원을 신청한 독립영화인은 아래 표와 같이 22%에 그치고 있음.
- 개인(프리랜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 가 어떤 지원신청도 하지 못함. 이는 지원에 대한 정보의 부재, 세대를 기준으로 한 지원금 지급 정책,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등으로 지원신청을 하기 어려운 조건들 때문으로 추정됨. 특히 독립영화의 경우, 창작자뿐만 아니라 영화교육자, 상영활동가, 영화제스텝, 단체활동가 등이 존재하지만, 현재 예술인 지원정책은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



- 아래 표 <코로나19 피해 지원신청>을 살펴보면, 지원신청을 한 개인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신청이 2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지자체 지원 신청이 15%, 정부 긴급지원신청이 5%, 인천문화재단 예술인 긴급지원사업 4%, 기타로는 서울시 청년수당 등이 있음. 이는 신청 비율이며, 이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됨.



## □ 단체 피해 지원 신청

- 상영관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손세정제 및 방역 비용 지원이 유일함.
- 휴관, 휴업, 단축운영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단체는 상영관(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서울아트시네마, 인디스페이스, 추억극장 미림), 배급사(시네마달, 영화사 진진, 인디스토리), 미디어센터(미디어엑트) 등이 있음.
- 소상공인 코로나19 긴급대출 지원 신청한 곳은 원주 고씨네와 부산의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가 있음.
- 코로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 업종(숙박업, 여행레저업, 도매업 등)에서 영화 관련 기업은 제외되어 있어 지원 신청이 어려운 상황임.

## □ 피해 지원 신청 관련 애로사항

지원	애로사항
정보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움. 어떤 지원이 있으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음.</li> <li>• 광범위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원액이 결국 저금리 대출이어서 부담이 됨.</li> </ul>
예술인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인경력증명 안되어 있는 경우, 기간 만료된 경우 신청이 어려움.</li> <li>• 너무 근래의 예술활동만 요구함. 예술활동 객관적 증명이 어려움.</li> <li>• 예술인복지재단 긴급지원금은 2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 내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재 신청을 할 수 없음.</li> <li>•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어려움</li> <li>• 심사를 통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일부 연속 수혜가 불가능한 부분</li> <li>• 예술인 코로나 피해 지원의 경우나, 긴급 복지 지원 신청 자격을 보면, 결혼한 부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원로예술인, 장애인예술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예술인은 선별복지 혜택에서도 완전 사각지대.</li> <li>• 예술인복지재단의 대출사업 승인 조건(특히 긴급지원금-계약서제출필수방식)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생각함. 정식 계약 전인 프로젝트 등의 연기로 인한 피해 등도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li> <li>• 예술인복지재단으로 5월경 대출 예정이나 소액이다보니 활용성이 희박하게 느껴짐</li> <li>• 독립영화 상영기획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인정되는 활동이 아니라 지원 불가</li> </ul>
정부/지자체 긴급재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은 가족비용으로 포함되어 개인으로는 따로 지원신청 못함</li> <li>• 가족단위의 소득분위 기준으로 지원에서 계속 제외</li> <li>•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시 프리랜서는 소득증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음.</li> <li>• 프리랜서 지원의 경우 기준이 공고일부터라 1-2월에 계약 및 취소된 건은 지원이 되지 않음</li> <li>• 기업 긴급 자금을 신청 중이나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해당 피해사실 증명이 어렵고 지금까지도 지원대상 선정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소식이 없음. 포스트프로덕션 보유 업체로 편집장비 및 후반작업 시스템을 실사시 제공해도 장비 자체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담당자들과 현실적이지 않은 자료 요구 등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 보임</li> <li>• 전용관 등은 최소의 인원으로 극장을 운영 유지하고 있어 휴직을 권고할 경우 극장 유지 관리가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쉽지 않음</li> <li>• 정부 지원금(대출 등)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있음</li> </ul>

<p>영화진흥위원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영화계 피해지원 전혀 없는 상황.</li> <li>• 개봉예정이던 독립영화의 경우, 대형제작사에 비해 제작진이 당장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됨. 현금보유력이 있는 대형제작사와 배급사, 투자사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음</li> <li>• 독립예술영화전용관 매출 급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 전무. 기존 지원체계의 빠른 집행 필요</li> <li>• 상영관의 경우 방역 물품 지원이 대기업 멀티플렉스 위주의 지원.</li> </ul>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종 지원을 신청하기도 어려움</li> <li>• 프리랜서나 1인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없음. 기존 대출과 매년 평균 수익을 생각하면 대출 방식은 부담스러움</li> <li>• 집에 PC가 없어서(폰으로는 안됨) 추후 정해진 기간에 주민센터 가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li> <li>• 영화인들은 공연계약 등의 일이 아니므로 피해조사에 증빙할 서류가 마땅히 없음</li> <li>•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없음</li> </ul>

- 독립예술영화계의 피해 보상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제도 개선 등 정부나 영화진흥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분류하여 제시함. (응답자 작성 내용 인용)
- 전체 응답자의 57%가 독립예술영화인과 단체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또는 긴급운영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개인의 경우, 용자보다도 현금 형태의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적 지원 방향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함.

구분	내용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신청 채널 통합 및 적극적인 홍보</li> </ul>
긴급생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기적 수익으로 살아가는 개인(프리랜서) 독립예술영화인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li> <li>• 큰 단체나 기업 포커스가 아닌 개인 창작자들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li> <li>• 개인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생활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람</li> <li>• 단체와 개인 등 최소한의 독립예술활동지원금 마련, 신속하게 지원</li> <li>• 프리랜서가 많은 업계의 특징상 사각지대에 놓인 독립예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시급(선정기준이 공공분야와 중복될 우려 있지만, 독립영화활동과 연계된 직접지원 확대 필요)</li> <li>• 배우나 그 외 프리랜서에게도 최소 긴급지원금을 책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급</li> <li>• 현재 고용되어있지 않은 영화인들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 필요</li> <li>• 독립영화인 및 독립영화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제도 마련</li> <li>• 대출이 아닌 말 그대로 긴급지원의 형식으로 예술인증명이 되어 있거나, 본인이 참여한 영화의 자료를 제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긴급 지원금이 분배되었으면 함</li> <li>• 1년 내 영화 제작 계획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괄적으로 기본 얼마 이상을 지원</li> </ul>
긴급 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 저리의 긴급 운영 자금 지원</li> <li>• 기제작 후 미개봉작의 경우 판권담보 지원금 지급. 제작중인 작품이 무기한 연기될 경우에도 같은 판권담보 지원금 지급</li> </ul>
기획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진위 기획개발지원 대상자의 조속한 발표와 지급</li> <li>• 코로나19로 많은 활동이 비대면영역으로 전환중. 대안의 활동을 개발하는 독립영화예술인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 독립영화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제고</li> </ul>

<p>제작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지원 관련 심사, 예산 집행 스케줄 빠르게 진행</li> <li>• 제작지원 정산기간 연장. 추가 지원</li> <li>• 제작비 추가 편성, 폐업 위기 장비업체, 후반작업 업체 등 현물지원 연계</li> <li>• 팬데믹 상황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라 잠정 연기된 장단편 프로젝트들도 제작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문서로 명시. 현재 단편의 경우 지원 선정 이후 6개월 내에 제작을 완료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2년 연장 검토</li> <li>• 제작지원작의 제작기한 연장. 컨셉 변경 허가</li> <li>• 기제작중인 작품은 작품 진행 상황에 따른 저작물 인정과 그에 따른 스태프 비용 선지급 등 작품을 완료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대폭 확대방안 마련</li> </ul>
<p>배급 개봉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개봉 지원 확대 및 영화유통에 활력이 되는 시책</li> <li>• 코로나 시기 개봉한 작품, 개봉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작년도 독립영화 관객수 추산) 및 추후 다른 방식으로 영화 개봉 및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li> <li>• 상영기회를 갖지 못한 독립영화들, 바로 온라인 다운로드로 넘어간 영화들을 상영하고 재평가할 자리 개척. 위기 공유와 공감하는 자리.</li> <li>• 코로나19로 인한 개봉 축소 및 개봉 연기 피해에 대한 일정 보상 필요</li> <li>• 코로나 시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배급사 근로자 인건비, 월세 등 고정지출비용의 지원이 필요</li> <li>• 재개봉영화로 인해 개봉하는 독립영화가 설자리가 없음. 재개봉영화 상영 제한 필요</li> <li>• 영화관들의 무분별한 입장료 가격인하, 재개봉작 범람은 독립영화 개봉을 더 어렵게 만드는 큰 문제. 독립영화 신작 개봉 보호조치 강구</li> </ul>
<p>영화관 지원 / 관람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관 운영지원사업 조기 지원을 통한 운영 안정화</li> <li>•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금 확대, 기획비 지원 등의 용도를 운영지원금으로 변환 필요(기획비 지급을 해도 관객을 위한 기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수익 하락으로 인한 극장 운영비 긴급지원 필요)</li> <li>•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긴급지원금 특별편성</li> <li>• 일반상영관(멀티플렉스 등) 코로나 피해 지원 시 독립영화 상영쿼터 의무 부과</li> <li>• 고용유지를 위해 독립영화전용관 지원금 용처를 인건비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 독립영화전용관 네트워크 공동 기획전 등 예산 추가 편성. 노후 장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 편성</li> <li>• 기존 운영지원금의 운영비 항목 중 인건비 적용 확대 필요</li> <li>• 안전한 영화관 운영을 위한 방역 등 비용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연중 방역관련 예산 지원</li> <li>• 비상설독립영화관에 대한 지원책 필요</li> <li>• 위축된 관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극장에서 5편 이상 관람하면 소정의 지역화폐 지급, 예술독립영화 관람쿠폰 지급, 지속적인 관람캠페인</li> <li>• 각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활용하듯, 영진위에서 독립예술영화관의 티켓 일반 시민 대상 배포. 독립예술영화 관객 확대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관의 교통유발부담금(100~240만원 납부) 2020년 경감 또는 면제. 추후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교통유량계수를 낮추어 이용관객수 대비 현실적인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 요청.</li> </ul>
영화제/상영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영화제도 영화계 인력으로 인식하고, 지원 대상으로 고려</li> <li>• 영화제 연기, 상영회 연기되었어도 프로그래밍, 기획, 홍보, 디자인 비용 등 제반 기 집행 비용에 대한 피해 보상</li> <li>• 영화제 연기에 따른 인건비 증대 등에 대한 추가 지원</li> <li>• 상영기획 종사자의 경우 상영이 갑자기 취소가 되면 기존에 했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황. 상영이 되지 않아도 기획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 금전적 비용을 코로나 19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li> </ul>
단체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영화인,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지원 필요. 가장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잘 알고 있고, 행정 단계를 뛰어넘는 민간 차원의 지원 가능</li> <li>• 영화 관련 단체의 인건비, 임대료 등 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 인정 및 지원</li> </ul>
온라인 상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유료 상영 활성화</li> <li>• 영화교육의 온라인화 등 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원 필요</li> <li>• 학교 온라인 교육 지원 일자리 영화인들로 충원(영상제작 및 지원)</li> </ul>
구제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특별구제기금 조성</li> </ul>
인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예술관련 직종의 간단한 인증절차 마련. 피해 지원제도와 연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상 산정을 위한 TFT 구성 (피해규모 파악 및 보상 수준 결정).</li> <li>• 비창작 영화 활동가 지원 포함 영화 생태계 전반에 대한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골고루 지원해 주면 좋겠음</li> <li>• 단기 일자리 기회 제공</li> <li>• 향후 현재와 같은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술인 임대주택 사업 및 기본소득 등 장기적 미래를 위한 제도에 대하여 적극 검토요청</li> <li>• 멀티플렉스 독과점 방지법 시행</li> <li>• 포스트 봉준호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마련. 이를 위한 온라인 영화인토론회 개최. 이를 위해 영진위 내외부가 참여하는 TF 구성. 해외 문화예술정책 사례, 국내외 경기동향 업데이트 및 방향 설정.</li> <li>• 각 지자체에 1개 지역영화센터 및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설립 의무화. 서울 중심의 영화산업이 아닌 지역영화정책 수립.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뉴딜사업.</li> <li>•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제 도입</li> </ul>

## [자료 1]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독립영화인 의견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이 긴급하게 실시한 피해조사에서 많은 독립영화인들과 단체들은 현장의 구체적인 피해상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화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현장의 의견들을 정책 당국에 전달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긴급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우 비실명 기재, 단체는 동의를 받아 단체명 기재)

### A (경기)

많은 제작자들이 작품제작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교육현장에서 일하거나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대부분인지라. 예술계는 특히 타격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이 안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진행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주시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 B (인천)

자료를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신청 자격기준이 되는지 여부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지 확실치 않습니다. 대상이 된다고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정에 없던 번거로운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에도 영화교육이나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독립영화인들에게 더욱 어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작지원보다는 생계비 지원 쪽의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 C (서울)

올해 개봉해야할 신작이 있는데 논의 중이던 배급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하반기에 개봉하려고 했는데 현재 개봉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배급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개봉을 하게 되더라도 마케팅비를 제작사에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제작비가 부족해서 선판매 된 부가판권 금액으로 부족한 영화 제작비를 충당했는데 일정기간 내에 합의한 조건에 맞게 개봉을 하지 못할 경우 부가판권료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봉이 연기된 다수의 상업영화들이 안정 시기 이후에 다시 개봉하게 되면 극장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한 손실금을 메꾸기 위해 수익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저예산 영화의 극장 확보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듯합니다. 영진위가 개봉을 앞둔 저예산 독립영화에 대한 마케팅이나 개봉지원, 구제 기금을 더 늘려야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특별구제기금을 조성하고 개봉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립영화 제작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립영화관 지원은 물론 상업영화관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해 영진위나 정부에서 구제할 경우에는 상업영화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저예산 독립영화의 상영쿼터를 정해서 의무적으로 지키는 방안을 함께 제안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화계가 모두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독립영화와 상업영화가 상생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D (강릉)

강릉은 지역적 특성상 대부분의 영상영화인들이 교육을 통해 수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모든 강의를 취소되어 작년수입으로 3개월 정도 생활을 유지하다가, 야간알바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에도 시의 통보로 인해 영업을 4주간 정지되어 수입이 아예 없습니다. 자유학기제 교육을 위해 면접 보러 지출이 여러 차례 추가되었지만,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며 또다시 일자리를 잃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예정 교육날짜가 1주일도 남지 않았으나 아직 학교 측의 명확한 공지도 없어 온라인교육도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릅니다. 시의 지원금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지역화폐로 제공이 되는데, 이는 생활비보다 중요한 월세나 휴대폰요금, 공과금, 보험료 등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주위의 교육자들은 카메라나 마이크 등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각 학교에서 온라인강의에 대한 장비지원 및 영상인력 지원이 전혀 없어 교육자들이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알아보고, 편집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장비 및 영상제작을 도와주는 방식의 일자리제공이 된다면, 교육자측에서도 영상인력에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 (대구)**

3월부터 하기로 한 경주에서의 3주간의 강의 한 건과 4월에 하기로 한 미디어센터에서의 8주간의 강의가 둘 다 무기한 연기되면서 3, 4월 수입이 없어 생활고가 심합니다. 연기될 줄 알았다면 다른 일을 구했을텐데 몇 차례 연기가 되더니 이렇게 더 연기가 되네요. 현재 5월 말부터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또 연기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시급합니다.

### **F (서울)**

원래 많은 돈을 벌지 않았고, 수입이 들쭉날쭉 했기 때문에 피해액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이나 후나 힘든 건 마차가지입니다.

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직업 특성상 감안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예술분야 종사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정적 수입이 없기에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틀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면 창작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은 액수의 돈이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고정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G (서울)**

저는 창작을 하는 필름메이커이고 극장개봉 보다는 영화제를 통해 대중을 만납니다. 제가 계속 관객과 동료들을 만나려면 크고 작은 여러 영화제가 건강히 지속되어야 하고 비창작 영화 활동가들과 독립영화 단체의 생계와 생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영화 생태계 전반에 대한 피해를 면밀히 살피고 골고루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 **H (서울)**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실기 교사로 재직 예정되었지만 코로나 19로 개학이 연장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래에 예정된 유일한 수입원이었던지라 고충이 큼니다.

프리랜서로 근근이 들어오는 일용직이나 임시 계약직으로 빠듯하게나마 생활비를 벌어왔는데 이런 사업 부문이 모두 축소되어 일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종 지원을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 **I (서울)**

거대 투자사와 배급망을 타고 개봉이 연기된 제작비 50억 이상의 "상업영화"들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독립영화와 독립영화인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선별적 피해보상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J (서울)**

예술전용극장들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화 프로덕션은 촬영일정을 미룰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 그대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영진위가(최소 영진위 지원작이라도) 같이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각 개별 작품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촬영 전의 소규모 영화들이 일정을 미룰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인건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K (인천)**

장편 시나리오 작업과 영화 관련 교육 및 사업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강의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미뤄지면서 지난 3개월간 소득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버터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범위를 최대한 넓혀줬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영진위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추가 편성하여 제작비 일부를 코로나 사태로 폐업 위기에 있는 장비 업체, 후반업체, 식당, 숙박업소 등에 사용하게끔 한다던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경기영상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서 간접 지원금으로 현물지원하는 것처럼)

## **L (서울)**

영화 개봉일이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던 시기와 맞물렸고, 이미 개봉 P&A 비용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봉을 미룰 수 없어 일정에 맞춰 개봉을 하게 되었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관을 결정했던 극장이 많아, 개봉을 예정했던 개봉관의 1/3 정도만 개봉하게 되었음.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영화 전체 관람 관객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영화 개봉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음. 영화 개봉 3주차부터 예정해두었던 GV 행사를 재개하였으나, 정부 권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관객 모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화 상영 및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시사회 분위기 및 언론 홍보 분위기, 상영을 약속한 개봉관 수를 가늠해봤을 때 최소 5000명의 관객 수를 예상했으나 현재 개봉 7주차에 누적 관객수는 1760명임. 개봉을 약속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로 아직 휴관 중인 극장도 꽤 있음.

## **M (서울)**

예술인 코로나 피해 지원의 경우나, 긴급 복지 지원 신청 자격을 보면, 결혼한 부부,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원로예술인, 장애인예술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예술인은 선별 복지 혜택에서도 완전 사각지대다. 40대 예술인은 모두 결혼한 이성애자 정상가족 중산층인가 그럼? 정말 화난다.

## **N (부산)**

원래 시스템밖에 작업하던 독립영화인들은 이번 사태로 그 심각성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을지언정 그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영화인들은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작은 규모라도 많은 영화인들이 신청하여 창작활동을 해 나갈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O (서울)**

용자를 받을 때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기관이 50%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용자 형태라서 추후에 프리랜서로 생활하며 상환을 무사히 할 수 있을지 장담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대상 사업 역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력이 요구되고 청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40대 이상 동료는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P (서울)

더운 날, 고령의 엑스트라가 다수 출연하는 시위대(태극기 부대)와의 에피소드가 주 내용인 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부분 촬영을 했지만, 기촬영분만으로는 영화를 완성할 수 없고,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집회 불허, 고령자 건강 우려로 인해 남은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작년 지원작으로 올해 안에 완성해야하는데 완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부산)

한국 사회에서 예술인 복지가 형편없는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라 늘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지만, 이 위기가 예술인 전반의 복지, 나아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이들의 상황을 보다 신경 쓰며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친구들에게 당장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비영하게 사람들을 포함하여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득이 되어왔다는 '유대감'이 형성된다면 더 좋겠지요.

예술인 복지가 형편없는 현실 앞에 우울해 하던 친구들이 이번 사태를 맞으며 더 우울해하고 있다는 사실, 술 한 잔 하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를 보며 '연대', '상생', '공존'을 이야기하지만 내 주위의 누군가, 함께 영화를 하고 보고 이야기하던 동료자 자신의 현재 처지를 비관할 때 은근히 '약육강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이라도 나오지 그랬냐, 줄이라도 잘 서지 그랬냐 같은 것일 텐데, 힘든 본인들도 그랬으면 덜 힘들었을 거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순진해서인지 고집이 세서인지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소위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왜 영화를 하는지 강한 회의가 들겠지요. 모두가 물질적 지원에 대해 강력히 어필을 해야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신적 지원, 고작의 '상호관심'이란 것이 늘 필요하고 특히 이런 위기 상황일 때 얼마나 절실한지 되새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독과점 3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번 위기가 독과점 행태를 개선하는 제도의 실질적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에 가까워졌을 때 상영기회를 잘 갖지 못한 독립영화들, 바로 온라인 다운로드로 넘어간 영화들을 상영하고 재평가할 자리들이 대규모적으로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독립영화계가 봉착한 위기나 사회적 위기일 때 더 위기에 처하는 현실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겠지요.

## R (서울)

저는 지난 3월 개봉한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제 영화는 독립영화홍보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 2월 17일 언론 시사회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18일에 대구 신천지 교도 31번 확진자를 만나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꽤 많이 지출된 홍보비로 인하여 개봉을 미룰 수도 감행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저는 예정대로 개봉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개봉 2주차에 돌입하기 전까지 어떤 단체 홍보 행사도 할 수 없던 그 때를 생각하면 그 참담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아직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국에도 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개봉 2주차부터 힘을 얻게 된 관객들의 입소문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의 분별없는 재개봉작들의 홍수 그리고 일반극장들의 장기 휴업으로 개봉관을 지키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4월 14일로 IPTV로 제 영화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극장 측 운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입장료 가격인하, 재개봉작들의 범람은 독립영화의 개봉을 더욱이 어렵게 만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독립 영화 신작 개봉이 무분별한 재개봉과 입장료 경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합니다.

### **광주독립영화관**

1년 단위로 공모되는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반드시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구조인데 사업의 일정상 매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년 가까이 되는 기간의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는 조건은 운영단체에 부담이 됩니다. 대기업 체인점 보다 작은 극장의 컨디션을 살피는 정책을 기대해봅니다.

### **추억극장 미림**

사태가 장기화 될 시 주요 관객의 이탈 및 신규 관객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관람객 수가 큰 폭으로 하락될 것이고 전년도 매출에 큰 상승폭을 나타냈던 대관과 교육 사업, 기획 행사 등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전반적인 매출급감이 예상됩니다. 매출급감은 결국 직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됨으로써 직원의 인원감축이나 근로시간 감축 등을 고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신속하게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영화사 진진**

코로나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금은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신규 지원 오픈 시기(4/16일 예정)를 기다리며 신청 대기 중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서도(숙박업, 여행 레저업, 도매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외되어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우선 접수대상에서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코로나지원책을 유관 기관이 자세히 체크하고 확인해서 - 코로나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금 같은 지원책 혜택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인디스토리**

개봉이 연기되어서, 몇 달간 공들여 잡아온 상영회와 시사회들을 줄줄이 다 취소해야만했습니다. 이견 사실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솔직히 사기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3월 말에 개봉을 한편 했지만, 기대만큼의 관객들이 들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고 금전적인 피해도 매우 큽니다. 공동체 상영이나 각종 상영회가 모두 취소되면서 그동안 상영회를 위해 들었던 모든 노력들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화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재개봉영화를 막아주세요. 재개봉영화때문에 지금 힘들게라도 개봉하는 영화가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지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영화제 개최 불안정, 지역 극장에서의 상영준비의 어려움, 기타 사업 심사 연기에 따른 사업 진행 무기한 연기. 지역의 카페 및 공간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감독들이 시나리오 작업을 하거나 프리프로덕션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음. 협회의 회의실 하나를 이용하는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작업중. 여름에 촬영 예정인 영화들은 현재 프리프로덕션 시작하지 못함. 준비 못하는 동안에 다른 워크숍 강사, 촬영 알바 등 모든 것들이 중단되면서 경제활동이 강제적으로 멈춰짐. 영화인들은 특히 공연계약 등의 일이 아니므로 피해조사에 증빙할 서류도 마땅히 없음.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는 더없이 힘든 상황. 협회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여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기는 하였으나 정작 영화인들은 수입이 없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디다큐페스티벌**

코로나19로 인해 3월 예정이었던 영화제를 연기하게 되었다. 사업 특성상 단기 스태프 고용으로 실무진이 구성되는 가운데, 영화제 연기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연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다. 영화제 연기 결정 시에도 보다 안정적인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연기 시점을 더 늦추는 것 또

한 고민하였으나, 여러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 또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영화제 개최 시에는 안전한 현장 운영 및 활동가 안전을 위해 운영 인력(스태프, 자원활동가) 계획의 수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상영관 내에서 관객과의 대화 등 부대행사가 지속되는 만큼 대관 극장에서 시행중인 기본 방역 외에도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아직 행사를 치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관객 감소 등에 따른 추가적 손실이 예상된다.

### **미디어액트**

본 단체는 시민, 기업들의 후원과 영화교육 및 영상장비 대여 등을 통해 운영되는 미디어센터(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3주간 휴관하면서, 운영이 중단되었고, 개인 및 기업의 후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영화교육 및 영상장비 대여 등으로 부담했던 운영비도 5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미디어센터 공간과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중간지원조직 차원의 여러 사업들의 자부담 비용(이행 보증금 및 전담인력 인건비)도 떠안아야 합니다. 저희의 어려움은 2차적으로 저희를 통해 강사비를 받던 독립영화인들의 생활고, 마을미디어, 독립영화인, 미디어활동가를 지원하는 지원금 축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또한 (대출 등)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받을 수 없어, 정부 지원의 사각 지대에 있습니다.

## [별첨 2] 해외 영화분야 코로나19 지원 정책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은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의 독립예술영화 산업 생태계 전반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피해 최소화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같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영화 분야 긴급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의 영화분야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사태에서 영화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긴급/응급 지원 및 고용 유지 및 사업 지속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의 폭은 물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영화분야의 개인(프리랜서)과 다른 지원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영화관련 단체, 아트하우스 등 독립예술영화관들에 대한 긴급한 응급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을 갖춘 영화인, 단체라면 누구든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영화 업계의 회복을 위해,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프리랜서 및 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넷플릭스와 함께 영화 TV 분야 프리랜서를 위한 <Covid-19 긴급 구제 기금>를 마련하여 제작, 유통, 상영 전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들에게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 역시 비상조치로서 “영화 분야를 보호하길 원한다면 가치사슬의 첫 단계인 창작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활동이 감소한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넷플릭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영화산업에서 일하는 예술가와 프리랜서들을 위한 긴급 지원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1,200여개의 예술실험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독일**은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가장 다양하고 공격적인 응급조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구호 조치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3개월에서 5개월에 이르는 긴급 자금을 규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트하우스 영화관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위해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지원금을 편성하여 피해가 큰 예술영화관들이 응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영화 분야 지원 정책은 응급하고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과 아울러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영화인들을 위한 전향적이고 신속한 지원 정책이 하루 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 □ 영국<sup>1)</sup> : BFI(영국영화위원회)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 영화산업에 전례 없는 도전 COVID-19의 광범위한 영향이 전체 영화산업 및 모든 수준에서 발생
- 영화산업에 대한 단기 및 장기 영향의 규모를 시급하게 평가
- 업계의 회복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상영관 및 프리랜서 분야에 대한 지원 및 단기 중기 금융 지원, 문화 및 사회의 다양한 과제 해결에 중점을 둠
- BFI는 정부 및 해당 분야의 기금지원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여 해결책 마련
- 정부와 대화를 조정하고 대응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Screen Sector Taskforce 설치
- 코로나19 관련 영화산업의 모든 문의 창구([covid-19.queries@bfi.org.uk](mailto:covid-19.queries@bfi.org.uk)) 단일화
- 영화제작자들에게 사례별 조언 제공. 개인, 기업, 각 분야별 Q&A 업데이트 제공. 정부 지원 연계

### ○ Covid-19 영화 TV 긴급 구제 기금 설립

The Film and TV Charity 피해조사 결과, 업계 프리랜서의 93%가 코로나 위기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있으며, 74%는 정부의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에 부적격하거나 정부의 직업유지제도에 프리랜서로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응답자의 74%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득에 대해 극도로 걱정한다고 답했으며, 45%는 음식, 의약품 및 주거 등의 기본 생활비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BFI의 벤 로버츠(Ben Roberts) 최고경영자는 "프리랜서 전문가는 영화와 텔레비전 산업의 중추이며,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넷플릭스 이외에 다른 산업 파트너가 긴급 구제 기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함.

- BFI는 The Film and TV Charity(영화 TV 자선단체)와 제휴하여 넷플릭스, BFI, BBC 등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영화 TV 긴급 구제 기금(The Covid-19 Film and TV Emergency Relief Fund)> 조성
- BFI는 50만 파운드(한화 약 8억원) 복권기금 기부, 넷플릭스는 1백만 파운드 이상(약 19억원) 기부, BBC는 50만 파운드를 긴급 구제 기금에 기부하고, 20만 파운드(약 3억원)를 추가로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기부함
- 영화 TV 분야의 자격을 갖춘 노동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기부금 지원
- £500(한화 약 77만원)에서 £2,500(한화 약 383만원) 사이의 일회성 보조금 수여
- 이 기금의 배분은 The Film and TV Charity에서 담당하며, 정확한 자격 기준과 개별 자금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제작, 유통, 상영 분야에서 일하는 개인들에게 지원. 기금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자선단체의 메일링리스트 등록해야 함

The Film and TV Charity 소개 : 1924년 영화 및 TV 산업에서 인력의 가치를 이해한 기업가들의 기부로 영화산업 초기에 설립된 자선 단체. 지난 100년 동안 영화 및 TV 업계의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원하고 기금을 분배하는 지원 역할을 해 옴

1) 영국BFI 홈페이지([www.bfi.org.uk](http://www.bfi.org.uk))와 스크린데일리 뉴스(<https://www.screendaily.com/news>) 참조

## □ 프랑스 : 프랑스국립영화 및 동영상센터(CNC)<sup>2)</sup>

### ○ CNC의 코로나 위기 영화인에 대한 지원 조치

CNC의 의장 도미니크 부토나(Dominique Boutonnat)는 CNC 회의 자리에서 “영화 분야를 보호하길 원한다면 가치사슬의 첫 단계 즉, 창작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4월 1일 CNC 위원회는 정부가 이미 실행 중인 조치들 외에 영화인에 대한 CNC의 지원을 가속화하는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 ▶ 50퍼센트 이상 활동이 감소한 창작자들을 위한 예외적 비상 기금 운영.
  - (수입이 매우 경기 순환적이고 넓은 시간 범위에 걸쳐 있는 창작자들의 경우) 정부에서 설립한 연대 기금 혜택 요건<sup>3)</sup>의 충족을 증명할 수 없는 창작자들을 위해 1,500유로(한화 약 200만원) 지원.  
(※2019년 또는 그들의 창작 결과물의 주기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면 더 긴 기간의 월평균 수입 대비 수입의 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영화 분야의 모든 회사- 제작, 배급, 상영, 비디오 퍼블리셔, 수출 등-들 중 자금 유동성 문제에 처했으며 정부 조치로 극복이 어려운 회사는 신규 프로젝트 기획개발에 들어가기 이전에라도 CNC에 설치된 자신의 지원 계정에서 30%까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이외에 원격 근무와 산업 회복 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특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개설함. 부토나 위원장은 이러한 투자가 단순히 지금의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 경쟁력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함.
- ▶ 마지막으로 신규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즉각적 접근성 향상. 극장 개봉과 DVD 출시 사이에 의무 간격을 4개월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극장 폐쇄 기간 동안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DVD, Pay Per View VOD로 최초 개봉하려는 제작사와 배급사에게 CNC가 할당한 극장 보상금을 면제하기로 함.

### ○ 문화부 추가 비상조치

문화부 장관 Franck Riester은 CNC가 기존의 조치를 보완하기 외에 5가지 추가 비상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확인함.

- ▶ 3월부터 1,200개 예술실험영화관을 위한 지원금 지급 가속화
- ▶ 3월부터 배급사를 위한 선택적 지원금 지급 가속화
- ▶ 2020년 3월 TSA 납부 마감일 연장
- ▶ 극장운영-배급-제작사가 미리 자신들의 지원 기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 채택
- ▶ 보건상의 이유로 취소된 행사의 예정된 지원금 지급

### ○ 긴급 지원 기금 설립 : 넷플릭스 1백만 유로 기부

넷플릭스와 오디앙스(Audiens, Acteur de l'économie sociale et solidaire, 문화 분야 사회적 보호 그룹)는 CNC를 통해 문화부 장관과 협의 하에 4월 8일 시청각 및 영화 산업에서 일하는 간헐적(근로 형태의) 예술가와 기술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 기금의 설립을 런칭했음. 넷플릭스는 이 기금 설립에 1백만 유로(약 13억 원)를 기부함.

2) 2020.4.10. 기준 [https://www.cnc.fr/professionnels/actualites/covid-19--information-du-cnc\\_1139648](https://www.cnc.fr/professionnels/actualites/covid-19--information-du-cnc_1139648) 및 <https://europeanfilmagencies.eu/news-publications/our-press-releases/241-measures-by-efad-members-to-mitigate-the-consequences-of-the-covid-19-outbreak>

3) 연대기금 요건 :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에 70% 이상 활동이 감소하거나 2019년 4월 대비 2020년 4월에 50% 이상 활동 감소한 경우 1,500유로 지원

## □ 독일 : FFA(연방영화위원회)

### ○ FFA 집행위원회의 코로나 대응 조치 (3월 19일)

- 영화관들의 경우 2020년 3월 1일 마감일로부터 대출금 청구 및 미납 세금 납부 연기, 코로나로 인해 포기된 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 상환요구 포기, 비디오 대여 및 판매 분야에서의 보조금 상환도 면제하기로 결정함. 또 신규 지원사업의 신속한 처리와 지원금 집행
- 또한 FFA와 BKM(문화미디어부), 그리고 지역 기금들은 코로나 관련 추가 (발생) 비용을 커버하는 특별 기금을 제공하기로 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여된 모든 펀딩 기관들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감당하며, 최대 총당 금액은 애초 제작비용의 30%에서부터 애초 배급 비용의 50%, 비디오 제작비용의 30%까지임. 이 기금을 위해 FFA는 여유자금에서 750만 유로를 제공하기로 함.

### ○ 연방 및 주 영화지원기구들의 공동 지원 프로그램

- 3월 27일 정부 차원의 일반적 지원 외에 연방 및 지역 영화 관련 지원기관들이 모여 1500만 유로(한화 약 200억 원) 규모의 공동 지원 패키지를 설립함. 현재 독일의 모든 극장들은 3월 16일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대표 간의 협약 이후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 중임.
- 3월 18일 이전에 지원 승인을 받았으며 6월 30일 전에 촬영 및 배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로 활동이 중단된 제작사와 배급사의 경우 지원금을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됨.
- 또한 아트하우스 영화관들을 위한 긴급 지원 계획도 주목할 만함.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 영화미디어 위원회(Medienboard Berlin-Brandenburg, MBB)에서는 2020년 아트하우스 지원금을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된 110만 유로(약 15억 원)로 올리기로 함. 또한 올해 MBB의 시네마 프로그래밍 어워드에 신청하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모든 영화관은 1만 유로(약 1300만원)의 응급 지원을 즉시 받게 됨. 이 어워드에서 입상한 영화관들은 50%의 추가 지원을 얻게 됨. 베를린에서 39개, 브란덴부르크에서 22개, 총 61개의 영화관에게 적용됨. 다른 주에서도 아트하우스들을 위해 비슷한 지원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의 응급조치 500억 유로(66조 3270억원)

#### ▶ 소규모 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 구호 조치.

- 대상 : 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소규모 기업.
- 운영기관 : 연방정부가 총 500억 유로의 연방기금으로 최대 10명이 직원이 있는 기업까지 구조. 개별 연방주에서는 1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에 보조금 제공.
- 목적 : 2020년 코로나 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적 재정 보상
- 지원내용 : 보조금 형태로 1회 즉각적인 재정 지원, 상환 불가능한 자발적 혜택으로 부여됨.
- 구분 : 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및 최대 5명의 직원(풀타임) 3개월간 1회성 지원금으로 최대 9천유로 까지 지원, 최대 10~15명의 직원 최대 15,000유로, 최대 50명의 직원 최대 3만유로, 최대 100명의 직원 최대 6만유로. 3개월 또는 5개월 연속 신용 유동성 부족에 따라 지급.

####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단기 근로 수당

- 담당기관 : 연방 고용 기관
- 목적 : 단시간 작업 혜택의 유연성
- 대상 : 직원의 10 % 이상이 임금의 10 % 이상을 잃은 경우 단기 수당 받을 자격 생김.
- 지원내용 : 직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급여를 받고 고용 기관을 통해 손실된 순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자녀가 1명 이상인 직원은 손실된 순 임금의 67 %를 받음.
- 전제 조건 : 고용된 여성의 10% 이상에 대해 10% 이상의 수입 손실. 고용주는 연방 고용 기관에서 단기 근로 혜택을 신청.



- 특징 :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 적용.  
근무 시간 손실에 대한 사회 보장 기부금은 100% 상환됨.  
임시직 근로자도 단기 근로를 할 수 있으며 단기 근로 수당이 가능함.  
근무 시간의 변동에 대한 계약이 사용되는 회사에서는 부정적인 근무 시간 계정이 설정되지 않음.  
단기 근로 급여 측정은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원칙적으로, 도시 또는 공공 기업(예 : 극장, 박물관)에서도 단시간 수당을 통한 단시간 작업이 가능함.

▶ 코로나 구조 지원 대출 (응급 처치 패키지 1)

- 대상 : 중소기업, 문화적 창의적 산업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회사도 포함
- 운영기관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KfW, 재건을 위한 대출 연방은행)
- 목적 : 중소기업의 단기 유동성 보조(예: 공급업체 부채 결제, 인건비 및 임대료)

▶ 유동성 지원: 직원 10명 이상인 회사를 위한 KfW 빠른 대출 2020

- 목적 : 구매(투자) 및 운영비용(운영 자원)에 대한 프로모션 대출
- 대상 : 2019 년 1월부터 시장에 나와 있는 직원이 10 명 이상인 회사
- 특징 : KfW에 의한 100 % 위험 가정, 은행의 위험 평가 없음
- 최대 대출 금액 : 2019 년 연간 매출의 최대 25 %  
  - 직원이 최대 50 명인 회사는 최대 500,000 유로
  - 직원이 50 명 이상인 회사는 최대 800,000 유로
- 상환 조건 : 최대 10 년, 2년간 상환 없음
- 전제 조건 :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평균 수익을 올렸음

## 코로나19 독립영화 공동행동